

가루쌀 첫 수확에 확대 장려 앞장 순창 토착 유산균·홍삼 만남

심민 임실군수, 시험 재배 '바로미2' 수확 현장 찾아 농가 격려·애로사항 청취

심민 임실군수가 올해 처음으로 시험 재배한 가루쌀 '바로미2' 첫 수확 현장을 찾아 농가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심민 임실군수가 올해 처음으로 시험 재배한 가루쌀 '바로미2' 첫 수확 현장을 찾아 가루쌀 확대 장려에 앞장섰다.

심 군수는 지난 29일 오후 2시 신기리 일원 올해 처음으로 시험 재배한 가루쌀(바로미2) 수확 현장을 찾아, 농가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심 군수는 "정부의 쌀 적정 생산 대책 기조에 따라 군 자체 예산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며 "논 타작물 재배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농업인들이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심 군수는 "더욱이 올해는 벼멸구 피해 등으로 쌀 작황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앞으로는 논 타작물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며 "많은 농업인들이 가루쌀 및 논콩 등 논 타작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강조했다.

군은 가루쌀 생산단지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컨설팅사업으로 파종부터 수확 후 관리까지 생육 단계별 관리 요령 및 선진견학 등 체계적인 기술 지도를 전문 컨설팅팀을 통해 올해 100% 매입될 예정이다. 가루쌀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특수 벼 품종으로, 일반 쌀과 달리 물에 불리지 않고 제분하여 빵, 라면, 과자 등 다양한 가공식품에 사용할 수 있다.

군은 국비(전라작물직불금, 200만원/ha)와 별도로 군비 자체 장려금으로 ha당 60만원을 추가 지급하여, 총 260만원/ha를 지원하는 등 가루쌀 재배면적 확대 장려 및 농가 소득 증대에 힘쓰고 있다. /임실=진총영 기자

수확된 가루쌀은 농가 소득 안정과 수입 밀 대체 가공품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음 달 중순경에 공공비축미곡으

로 100% 매입될 예정이다. 가루쌀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특수 벼 품종으로, 일반 쌀과 달리 물에 불리지 않고 제분하여 빵, 라면, 과자 등 다양한 가공식품에 사용할 수 있다.

군은 국비(전라작물직불금, 200만원/ha)와 별도로 군비 자체 장려금으로 ha당 60만원을 추가 지급하여, 총 260만원/ha를 지원하는 등 가루쌀 재배면적 확대 장려 및 농가 소득 증대에 힘쓰고 있다. /임실=진총영 기자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프리미엄 프로바이오틱스 출시

순창군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 특화 기술로 개발한 프리미엄 신바이오틱스 제품 '프로바이오틱스 레드(Probiotics Red)'를 출시해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선보인 프로바이오틱스 레드에는 전통발효식품에서 분리한 우수한 토착 유산균 3종과 6년근 홍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 혁신적인 신바이오틱스 제품이다.

이 제품의 핵심 경쟁력은 특허 등록된 3종의 프리미엄 식물성 유산균에 있다. 3종 유산균인 락토바실러스, 파라카제이,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은 장내 미생물 생태계의 균형을 맞추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이 제품의 핵심 경쟁력은 특허 등록된 3종의 프리미엄 식물성 유산균에 있다. 3종 유산균인 락토바실러스, 파라카제이,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은 장내 미생물 생태계의 균형을 맞추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이러한 시장 환경에서 프로바이오틱스 레드에는 두 카테고리의 장점을 결합한 혁신적인 제품으로, 새로운 시장 창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시장 환경에서 프로바이오틱스 레드에는 두 카테고리의 장점을 결합한 혁신적인 제품으로, 새로운 시장 창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프로바이오틱스 레드는 순창의 전통 발효기술과 현대 과학이 만나 탄생한 혁신적인 제품"이라며 "올해 10월 개관한 유용미생물은행과 발효미생물산업화센터를 중심으로 전통 발효미생물의 산업화를 통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전시 긴급채혈 대비 실제훈련 실시

순창군이 지난 29일 군청 앞에서 2024년 추무훈련 전시 긴급채혈 실제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훈련은 최근 한반도 정세 불안정에 따른 전시 대비 훈련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전쟁 발발 시 발생할 수 있는 대량 부상자와 혈액 부족 문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순창군청(보건의료원 포함), 7733부대 3대대, 순창경찰서, 순

창소방서, 전북혈액원 등 5개 기관이 참여, 약 90명의 인력과 장비 10대를 투입해 실제 같은 환경에서 진행됐다. 이날 훈련은 전시 상황에서 다수의 중상자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신속한 채혈반 편성과 채혈명령서 발부, 채혈 실시 등이 이뤄졌다. 아울러, 7733부대 3대대는 기동대를 운용해 테러 진압 작전을 수행하고, 순창경찰서는 채혈 버스 경비와 현장



통제를, 순창소방서는 부상자 응급처치와 후송을 맡았다. 보건의료원은 채혈반을 편성해 채혈 업무를 수행하는 등 각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훈련을 완료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삼시세끼 Light 지리산편 방송

내달 1일 오후 8시40분 tvN서

남원시 홍보전산과(고장 홍미선)는 tvN과 나영석 PD의 대표 예능 <삼시세끼>가 10주년 기념 스페셜 에디션으로 돌아옴에 따라 '삼시세끼 Light 지리산편'이 오는 11월 1일 tvN에서 저녁 8시 40분에 방송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삼시세끼'는 전국 산촌과 여촌을 누비며 얻은 온갖 재료로 삼시세끼를 만들어 가는 이야기를 다루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4년 정선 편에서 출발, 올해로 10주년을 맞아 차승원, 유해진이 4년 만에 컴백했으며, '삼시세끼 Light'는 시청률이 3주 연속 지상파를 포함한 전 채널 동 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할 만큼 인기 중에 방영되고 있다.

과 지리산 등반, 시장 방문, 다슬기 잡기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남원만의 숨은 매력을 예능으로 보여줄 예정이다. 특히 지리산에서 즐기는 고즈넉한 풍경과 여유로운 힐링 포인트와 산촌에서 얻을 수 있는 각종 식재료로 만들어지는 요리 등 다양한 매력이 준비되어 있다.

이번 지리산편에는 최근 JTBC 드라마 '놀아주는 여자'로 '로코킹' 수석역을 맡으며 인기를 끌었던 배우 엄태구가 게스트로 출연해 여편 예능 재미를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평화로운 산촌마을 배경과 달리 유명 배우들이 하루세끼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

이 관련해서는 "차승원, 유해진을 통해 그동안 보여주지 못한 지리산의 다채로운 모습을 이번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농업인대상 선정

남원시는 농업인의 날을 맞아 어려운 농업 여건을 극복하고 소득향상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있는 지역 농업인을 발굴, 2024년 농업인대상을 선정 발표했다. 수상자로는 4개 부문 △식량작물 송동면 김희식 △원예 부문 임한수 △축산 부문 송동면 이우휘 △농촌관광 부문 덕과면 소영호 등 4명을 선정했다. 남원시 농업인대상은 농업분야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농업 환경변화에



농동적으로 대응하여 고소득을 창출한 선도 농업인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농업인의 자기직작은 물론 권익 향상과 남원 농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시상해 오고 있으며 금년까지 101명의 우수농업인이 선정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임실군이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40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국·공유지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 등 토지이용이 발생한 1,400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하고, 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청취를 거쳐 토지 지번별 제곱미터(m²)당 가격을 결정한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임실군 홈페이지(<http://www.imsil.go.kr>), 군청 주택토지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자가 열람부 등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후 오는 11월 2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이의 신청된 토지는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0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임실=진총영 기자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 정례회 대비 연찬회 가져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손중열)는 제269회 정례회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30일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필요한 사전 지식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효율적인 감사기법과 핵심 착안사항 등 논의, 감사 자료 분석과 심층 토론, 각종 현안에 대한 정보교환 등을 통해 남원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살펴보았다.

손중열 위원장은 "앞으로도 의회가 시민의 입장에서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 시민의 권익 보호와 지역발전을 위한 감시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9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의견은 11월 8일까지 남원시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